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방생대법회 봉행 순천 상사댐 등 각 교구별 실시



대구경북 교구, 제천 의림지.



부산경남 교구, 순천 상사댐.

충지증은 7월 16일 순천 상사댐 등지에서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각 교구별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부산경남 교구가 전남 순천 상사댐 인근에서, 대구경북 교구

충북 제천 의림지, 그리고 서울 경인 교구는 충남 서산 인면도에서 각각 법회를 실시했다. 부산경남 교구 법회에 참석한 원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생의식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간담심을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정성스런 일"이라며 "우리 진언행자들은 이번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양하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정사는 봉행사에서 "나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살리는 것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고,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간직하여 분별심과 아집과 집착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생법회에 동참한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 성불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생법회는 대비로자나 불전 초연, 유가삼일, 봉행사, 발원문, 자비방생의 노래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서산 인면도에서 있는 서울 경인 교구 방생법회에선 봉행사 후 서울 충지사 교도 등의 장기자랑과 노래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충지증 청소년 수련법회 회향 소년소녀가장,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충지증은 지난 25일부터 27일 까지 3박 4일간 합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험과 도전! 하나라는 충지인'이라는 주제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수련법회에선 종단신하 전국 각 사원의 어린이와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바라밀, 동래지역 아동센터아동,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 등 300여명이 참가해 생활을 이

과 상상력을 기르는 '논의, 신문 만들기'를 비롯해 팀의 훈련 발표-신념강화훈련, 아침정승, 도전! 켈린지 한마음 공동체, 활강 래프팅, 장기자랑, 캠프화이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장 견학 등 다양하게 실시됐다.

이번 수련법회는 부산 바라밀, 동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하여 자비사선의 뜻을 이 자리로 가져다

이 달의 종조법설

마음과 행위따라 화복이 달라진다.

마음이 깨끗이요, 행위가 연이 되어 모든 과가 일어난다. 같은 땅에 종자따라 결실이 다르듯이 같은 세상에 마음과 행위따라 화복이 달라진다.

세상허물 물들지 말고, 내 모습 향기 그대로...

대전 만보사, 제1회 연꽃축제 방문객 즐이어



원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종단 스승님들이 만보사 연꽃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충지증 대전 만보사(주교 지성) 경내에 들어서니 백여종의 수련이 등그런 고무통에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활짝핀 미소로 방문객을 환영한다.

지난 7월 20일 봉행되는 제1회 만보사 연꽃축제는 환하게 피어나는 수련의 미소처럼 행사에 참석한 종단의 스승과 교도들의 마음속에 밝은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고 있다. 2층 서원담에서 진행된 행사 개막회식시 우렁차게 들려오는 '몸마니반배홈'의 진언연승 소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씨앗을,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 번뇌와 망상으로 신음한 중생들에게는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연꽃으로 만든 한 잔의 차는 은은한 향기를 뿜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한 그릇의 연국수는 육체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화려하게 펼쳐진 연꽃들의 행진, 연잎차, 연꽃차 시연회, 연꽃수 공양, 지성 정사의 은은한 목소리로 강연된 연꽃 재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방문객들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연꽃은 사람과 같습니다. 오며가며 물이 많으면 멀어지고, 물이 적으면 부어지고, 연꽃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정성스런 거가장 바라밀, 동래지역 아동센터아동,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 등 300여명이 참가해 생활을 이

10면 만보사 제1회 연꽃축제

12면 충지증 여름학생 수련법회



수국수채, 생약원식을 정미목 범의귀과의 낙엽관목. 달이 기릴 생각. 향기로운 꽃송이인 시절 부처님께 올릴 미지대신 올렸던 슬픈 꽃. -송주 선암사

충지캠페인

지금은 집단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

프린스턴대학교의 생물학자 이언커존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정찰개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식량개미들이 10여 차례의 더듬이 접촉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후 식량개미가 집밖을 나가는데 뒤 하나라도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식량이 적으면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식량이 많으면 빨리 돌아온다. 식량을 구하기 좋은 날인지 결정하고 명령하는 녀석은 아무도 없다.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개미도 없다.

의하자면, 개미 등 군집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특성을 보이는 곤충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이들의 집단적 활동 시스템을 컴퓨터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물학의 환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위해서다. 가령 버스 운전사의 배지표짜기 문제나 네트워크의 부하 균등화 문제, 차량 라우팅, 플래닝, 패킷넷 네트워크 라우팅 등 여러 문제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별한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집단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단순한 생물이 단순한 규칙을 따르고 저마다 그렇게 알은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 이렇게 지휘체계가 필요 없어 집단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집단지능을 개미들은 이용하여 1억 4000만년동안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개미는 한 마리 한 마리 출어지 있을 때는 그저 작디작은 생물이 지나지 않지만 집단이 이룰 때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환경에 반응한다. 우리사회를 돌이켜보라. 수많은 연정과 투쟁 속에서 아무도 조용한 날이 없다. 특히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더 연정의 목숨이 높아만 간다. 지지자의 연설을 듣기위해 같은 당원들끼리 먹살잡이를 하는 바로 이때가 집단지능을 발휘할 때이다. 개미처럼 저마다의 정보와 지식을 한자리에 모아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불교충지증

제7회 경로법회

제7회 충지증 경로법회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의 정법을 깨달아 참 불자로서 경로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장기자랑, 야외법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비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니 수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가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 일 시 : 충기36년 8월 29일 ~ 30일
- ◆ 장 소 : '충주호 리조트' (충북 충주시 동량면)
-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 자원봉사 : 각 시연별 어르신들 봉양할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ail.or.kr



사 설

어린이와 청소년포교에 주력해야

어린이와 청소년은 내일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이다. 어린 새싹에서부터 정성과 바른 가치관을 지닌 아들들은 힘찬 세상의 풍파에도 두려워나아 포기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미래세계를 설계하며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인과법, 연기법"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 마음의 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업을 지을 때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불교인구의 현황을 보면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의 미래를 밝혀주는 지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일선교사들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비신도와 불자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불교를 믿는 학생들은 일명 "왕따"로 따돌림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불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등한시 하였음을 입증하는 결과일 것이다. 부처님의 진법자로서 불교 미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주력해야 한다. 근시안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투자하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지라도 먼 훗날 이들이 성장하여 불교적 인연의 씨앗으로 인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시적 시각을 버리고 거시적 시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

청소년수련회 일회성 행사 되지 않도록

이번 총지종 청소년 수련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해마다 참가 인원이 늘어나고, 또 참가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하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매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애써서 종단의 관계자뿐 아니라 아이들을 맡겨준 교도분들께도 감사하는 바이다.

청소년들을 불교에 접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가장 힘써야 할 분야이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불문하고 포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었던 청소년 포교는 특히 중요하다. 청소년 포교는 바로 미래 한국 불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는 흔히 보살불교라 일컬어질 만큼 교도의 편중화가 심하다. 풍파를 떠나서 사람에서 남자 불자를 찾기가 힘들고 청년불자, 청소년불자는 더욱 찾기 힘들다. 불교의 교리적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청소년 포교가 가능하다.

총지종은 일찍부터 청소년 포교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어려운 종단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집동해중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종단의 청소년 포교의 전통에 비추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수련회는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년 청소년 수련회비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조직적인 청소년 포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은 지혜를 짜내고 더욱 노력해서 청소년 수련회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포교로 연결되어 청소년들이 미래의 총지종교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각사 - 삼세한방병원 자매결연

건강증진과 진료편의 및 혜택 받기로



부산 정각사(주교 법공 정사)와 인근지역의 삼세한방병원(병원장 공복철)은 지난날 22일 정각사 3층 사원실에서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교도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자매결연을 통해 정각사는 앞으로 건강증진과 예방은 물론, 건강강좌, 교육연수, 진료편의 및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방과 양방의

사람을 통해 "정각사는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찰로, 질 높은 의료혜택을 보시차원에서 해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매결연의 취지를 밝혔다.

주교 법공 정사는 "뜻깊은 의료서비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이 이용하겠다"고 답례를 보냈다.

결연식에는 정각사 주교 법공 정사, 지회 신인복 회장과 신회 회 유육희 회장, 단월회 강영하 회장, 삼세한방병원 공복부 병원장과 공지현 총무과장과 직원 2명을 비롯하여 정각사 교도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알림방

▶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월초불공을 시행합니다. ▶ 중립 동해중학교는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함께 방학을 실시합니다. ▶ 제7회 경로법회 8월 29일 ~ 30일 총주호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총지종 집행부에 듣는다 ⑤ -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전문인 양성, 포교활성화의 장"



지정 정사

-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꾸러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1999년 5월 28일 설립되어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8년이란 세월 동안 역사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수재민 돕기, 불우교도가정 지원사업, 경로법회, 북한 동포 돕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수행해왔던 불우교도가정 지원사업, 경로법회, 수재민돕기 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며, 어린이 포교

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충, 어르신들을 위한 양로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조직이나 기구에서 중요하듯이 전문적인 인력의 선발과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 '무조건 돈만을 남비하는 기구'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복지자를 통한 포교의 활성화, 부처님 자비정신의 장을 마련하는 기구라는 인식으로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서울 총지사 보살들이 서울 경인교구 방생법회 정기자리에서 아프리카 토고 공연단으로 기증하여 공연을 펼치고 있다.

생활속의 밀교

▶ 정각사에서 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축약하게(?) 경원하고 있다. 고(苦)라는 것이다. 고(苦)란 괴로움, 고통을 뜻한다. 불교에서 이 괴로움(苦)을 네 가지, 여덟 가지로 나눠 사고(四苦), 팔고(八苦)라 부른다.

생로병사(生老病死)로 인한 괴로움을 사고(四苦)라 하고,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괴로움(愛別離苦),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怨憎會苦),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괴로움(求不得苦), 몸과 정신에 따라 탐욕이 일어나는 괴로움(五盛盛苦)을 합쳐 팔고(八苦)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애별리고(愛別離苦)'라는 괴로움이다.

도 한다. 그러나 이생과 저생의 길따라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괴로움에 비한다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은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사별(死別)로 인한 괴로움은 차라리 고통이다. 그러나 떨어져 지내는 당사자에게는 그것도 고통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 마음, 애뜻한 심정이야 오죽하랴. 그러나 참고 지내는 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별을 만들어 고통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부분들

현실을 긍정하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생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도 일체는 고(苦)라 하셨다.

나는 정각사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파하신 교설(敎說)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셈이다. 진정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져 지내는 것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성정하면서 객지로 멀리 나가게 되고, 장성하여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부모로부터 분가(分家)를 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삶의 터전에 따라 멀리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민을 가

는 정도 치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묵신과 고령화 시대에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현대병을 종교가 담당해나가야 할 것이다. 종교의 역할이 시대에 부응해야만 한다.

우리 종단에 여기에 눈을 뜨고 포교의 재일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어찌됐거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애별리고(愛別離苦)의 고통도 오로지 자기 수행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자기수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것도 수행의 일부라 생각된다.

<법경 정사/부산 정각사/법정원 연구원>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움 이웃과 나눴어요

2007년 7월 2일 부터 7월 31일 까지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Includes names like 개천사 무명씨, 만보사 승효제, 박용사 선혜일등, 정각사 황영숙, 회음사 권정희, etc.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산일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7668610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돌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완벽한 무대는 없다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참으로 많은 갈등을 한다. 만약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건널목의 중간에 서서 되돌아가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때는 단 51퍼센트에 자신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욕심이 많다. 처음부터 100퍼센트의 조건으로 시작되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완벽한 무대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 홍신자(우용가,명상가)

한 알의 콩, 한 줌의 콩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밭으로 내려와 콩을 배부르게 먹고는 알 손에 콩을 가득 채 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 알의 콩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숭이는 한 알의 콩을 주우려고 그만 두 손을 펴고 말았습니다. 마침 놀러 나왔던 꿩과 닭이 떨어진 콩알을 모두 주워 먹어 버렸습니다. 화가 난 원숭이가 이리 저리 뛰며 꿩과 닭들을



쫓아가자, 그들은 도망치면서 어리석은 원숭이를 놀려댔습니다. 한 알의 콩 때문에 한 줌의 콩을 놓쳐버린 원숭이가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 혜송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언젠가 지고말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와 인연 맺었던 사람도 그리고 물건도 그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게 됩니다.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동안 머지않아 그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내 삶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 손기원(지혜경영연구소장)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광고

-전수경연 제 18차- 글:그림/정수일

그럼, 여태껏 배운 속령만족제회구는 뭘 말인지 알지? 모... 몰라.

이이그---! 떡입술 너 커서 뭐 될래? 그것도 모... 몰라.

웨이야?! 불교공부 한다는 녀석이 그런 것도

아...아니. 안 해봤어.

한 번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야?

오웁! 딱 제격이네.

자, 그럼 내가 한 번 뽕어가 되봐라!

어? 딱밥이네. 맛있겠다.

어때! 이제 뽕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

안돼! 미끼야!

아아...지나간 일들이 생각난다. 뽕 밥이 죽었던 일... 개구리 동고에 팔다 꽃아 풍선 불던 일... 잠자리 허리 굽어 밀짚 대 이어주거... 등...

“떡지사지”라고 뽕어가 되어 봐야, 뽕어의 마음을 알 듯, 항상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아아...! 알른 구해줘요. 입 다 찢어 지겠어요.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속령만족제회구”의 제회구입니다.

그 과보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 생활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영사멸제회구!

제미나 오락으로 별 생각이 없을 수많은 죄업들을 참회하고 다시는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영사멸제회구’의 뜻입니다.

아이쿠!

내 전생애 살생의 업을 너무 많이 지었나봐...

정수일 홈페이지--> <http://home.paran.com/octagonp>

이달의 명상

작은 법당

연못 위로 잠자리 하나 날더니 어디론가 날아간다. 법당에선 법문이 시작되었다 보다. 큰스님 법문이 연못까지 들려온다. “나는 무엇인가”, “지금 나의 모양이 진짜인가” 그 답을 찾는 공부가 참선수행입니다. 날아갔던 그 잠자리가 다시 날아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소리 없는 법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잠자리가 연일 위로 한참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연못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연일이 일렁인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앞으로 꼭 부



처로 살아가십시오.” 잠자리는 스님의 법문이 끝날 때까지 연못을 날고 있었다. -현대불교 박재원 기자의 포토에세이 중-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완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송수일 보살 삼녀)
홈페이지: bomstudio.com



세계속의 불교 ①

Tibetan Buddhist Art (티베트의 불교예술)

불교의 포교를 위해 전법의 길을 따라 나선 초기의 여정은 부처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내적인 잠재성을 볼 수 있는 육구의 발견과 높은 차원의 인간적인 존재속에서 평가된 가능성을 완전히 이해할 때 영적인 감응에 적합한 예술적 형태의 발전을 위한 끈연성을 보게 된다.

세계의 많은 다양한 문화의 종교적 예술 속에서 티베트인 만큼 넓은 도화지위에 내면의 맑고 순수한 정신적인 면을 거대한 규모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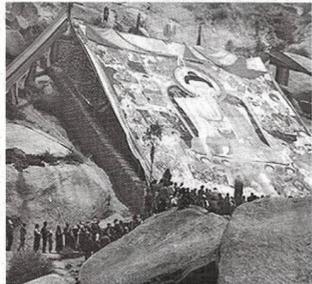
진다. 또한 동글게 말아지기 쉬우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아이티엔 라마는 불교교리의 가르침에 내용을 신성시하며 개인적 헌신의 형상으로서 사용되곤 한다.

Form and Function (형태와 기능)

트에 존재하는 것보다 서양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소장하는 것들이 더 많다.

Origins (기원)



교사로서 부처님의 임무는 예술의 작품들이 새로운 지각에 대한 계시의 상상력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서적에 나오는 담화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화려한 시각적 감각으로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 열반 후에 사람들은 삶의 자유를 표현하는 불상을 만들었으며, 처음에는 인간적인 면이 그들의 추억을 정당화될 수 없을 지라도 동그런 바퀴와 나무와 같은 형상들이 사용되었다.

AD 7세기에 불교가 티베트에 전래되는 동안 운원구족, 대승불교의 예술적 표현은 수준 높은 영감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거대한 남자와 여자의 보리살다, 다양하고 우주적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려한 극락의 모양으로 형상화되었고, 단트라 불교의 발전으로 원형적인 상상력은 폭력과 잔인성을 억압할 수 없는 더 깊은 잠재적인 마음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티베트는 AD 9세기부터 티베트인들을 위한 교육적 삼화와 불교 수행자들을 위한 명상적 시각의 관점에 적합한 다양하고 거대한 미술과 조각작품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후 수천의 사원에 그려진 벽화와 거대한 조각들이 파괴되었고 현재 아름다운 티베트 예술작품들이 티베

Painting (미술)



유명한 티베트 사원 벽화는 현재 티베트와 인도의 티베트 문화 영역인, 네팔과 부탄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티베트 외부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작품은 탕카와 족자 그림이며, 그것은 거의 비단위에 그려지지 않고 면직위에 그려진다. 색깔은 아채즙과 미네랄로 화려하게 그려지며 물감은 석회석에서 다양한 등급을 만들어 끓여진 아라비안 아교와 함께 섞인다. 오래되고 다양한 탕카의 작품들이 화려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접밀도가 높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티베트 작품들은 현대의 종합적인 안료를 사용하고 있다.

탕카는 매달리기 쉽게 꼭대기와 바닥에 오리목과 막대기를 가진 비단의 구조물에 화려하게 올려



그림과 조각에 형상화된 모양은 적당한 교과서 속에서 나오는 맑고 잘 정비된 도상이다. 예술가들의 지침서는 적당한 비율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관련된 엄격한 모양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예술가와 버금가는 티베트 예술가들은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적 관념을 표현하는데 자유스럽지 못하며, 잘 정돈된 구조 속에서 작품활동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탄트라적인 티베트 불교에서는 잔인성, 노여움, 공포, 비참한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부처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속에 잠재된 성품을 표현해 주고 있다. 예술가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속에 잠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형상을 표출함과 동시에 감춰진 우리 존재의 실상을 숙고하고, 표현한다.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형상들을 시각적인 모델로 만들어, 수행자들은 깊은 내적인 성찰과 고정된 집중력을 통해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존재의 실상을 파악한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history/buddhist-art/ibart.htm>)

번역 : 지정 정사

총기동지보감

중년기의 심리적 및 정서적 변화



김정규 원장
(서초실버의원)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5세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 중년기는 남녀 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취급받는다.

남자에서는 변화가 좀 조금씩 계속하여 있으므로 자라 모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좀 완연하게 변화가 나타나므로 40세 이후를 막 부러지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년기는 사회계급에 따라서 오는 시기가 다르다. 즉 상류층 사람에서는 중년기 변화가 늦게 오는데, 대개 지식층의 중년기는 40대에 시작한다. 이에 비해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계층에서는 일찍 오는데, 농사 짓는 집의 여성의 경우 40

세면 대개 고물취급을 받는다.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젊은이와의 거리감을 느낀다. 전에는 자기도 위만 보고 지냈는데 이제 보니 어느 사이에 젊은 사람들과는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면에서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이 나이가 되면 여성은 아이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해져서 가정 내에서도 발언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끝내 놓고는 자유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못다한 재능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부직을 찾아 나선다.

셋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 테니스, 조깅, 등산을 시작하기도 하고, 남편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며, 좋다는 보약, 보신을 묻고 다닌다.

넷째, 곱들여 키운 자식들은 모두 결혼, 직장, 학업으로 집을 떠나니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마치 빈 동우리에 앉아 있는 어미새 같은 허전한 마음과 인생무상감을 느끼는데 이를 "빈 새 동우리 중후군"이라고 한다.

폐경기가 오면, 3/4의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체내 내분비계의 변화에 따르는 일시적인 인연 증상으로 우선 신체적인 면을 보면 심계항진, 피로감, 경한 두통이 흔하다. 기타 흉조, 근육통 및 관절통, 식욕부진, 손발의 저림 등이 있다.

정신적인 면으로는 허무감, 우울증, 자살생각, 불면증이 있다. 그 중 불면 증은 새벽 3-4시경에 깨어 버리는 형태로 온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넘어 가는데, 소수 여자는 심해서 초조,불안이 깃들게 되어 마침내 갱년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죽비소리

진실한 말의 공덕

진실한 말은 밝음 중에 제일 밝으며, 정법의 계단이라 해 말이 있네, 무량한 재물이요 제일 보배라. 이것은 왕후라도 맺지 못한다.

캐왕들의 부귀가 장엄하여도 진실한 말의 장엄함에 비할 수 없네, 귀하고 단정함이 천인과 같고, 후세를 구호함도 진실한 말 광일세.

-정법염처경 正法處經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서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정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원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지상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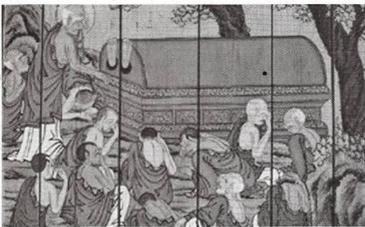
법 등 (법인사 주교)

기나간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그래서 낯선 손님인듯 조금은 익숙하지 못한 수줍은 모습으로 비가 내린다. 절미당의 나뭇잎들과 뒷밭에서 자라는 생영들이 반짝거리며 출출하고 있다. 이 절미가 그치고 나면 훌쩍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두 서 있기를 바라

〈향존하는 삶의 문제〉

부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관점은 언제나 육신의 활동을 깊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의 내적 자중의 추구를 통하여 언제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삼치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은 현상에 대한 의식과 그 의식들의 총체적인 인식

부처님의 열반



쌍림 열반상

부처님의 열반도 여든이 되었다. 부처님은 배살리 지방에 흠어져 있는 비구들을 모이게 한 뒤 석 달 후에는 열반에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부처님은 거리에 걸식하러 나갔다가 거리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며 이것이 배살리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결에 있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배살리를 떠나 파바리는 고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급세공 촌다가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나서 다시 병을 얻게 되었다. 이때 촌다가 올린 음식은 부처님께 올린 마지막 공양이었다. 이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면서 쿠시나가리로 다시 길을 떠나셨다. 많은 제자들이

을 떠나서는 바른 삶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론적 삶의 진실과 사실을 말한 것이지요. 모든 현상과 존재는 그 원인과 관계 속에서 생멸하는 존재의 모습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려져서 교만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애타는 애착의 그물에 걸려들며, 아첨하고 속이는 악수에 들어가면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하며,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악한 세상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나쁜 인연을 짓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 값을 줄 모르고 서로 원수로 여기며, 사된 소견에 집착하여 뒤바뀐 생각으로 미혹되며, 어리석고 지혜없어 신심이 없고, 악한 벗을 따르며 무명에 탐착하여 여러 가지 번뇌로 가득차게 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은 모두가 이러한 온갖 번뇌로써 악업을 짓게 된다. 그리하여 서로 공격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며, 서로를 따라주지 않고, 서

로 겸손, 하심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서로 보호해 주지도 않고 아껴주지 않으며, 서로 상처를 주고 수원이 되느니라." (화엄경, 불교총론 P.216)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원인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 속에서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원리이며, 삶의 진실한 지침인 연기법에서 벗어난 삶은 언제나 아픔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실과 사실을 말한 연기의 법칙은 원인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깨쳐야만 세상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고통을 치유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공존공생하며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각정에 잠겨 뒤를 따랐다. 이 길이어말로 부처님이 걸으신 최후의 길이 되고 말았다. 쿠시나가리에 도착하자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놀고 싶다. 저기 사자 아래에 가사를 네 걸음로 접어 깔아 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한쪽에 가 울고 있는 아난대를

볼렸다. "아난다여,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인젠 한편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도 많았다. 내가 간 뒤에도 더욱 정진하여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여라." 아난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 그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여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마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여래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 줄 것이다."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라밀족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사라스의 숲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쿠시나가리에 살던 높은 수행자 수바드라도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의 의문을 풀어아

사랑 더하기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의상관(相依相觸)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나 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도 소멸한다" 이것이 연기법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인과 관계에 의해서 연기에서 생기거나 소멸한다는 것이지요.

연기법은 삶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감로의 법이며, 지금까지 신(神)에게 의탁된 삶의 비밀이 인간의 삶 속

연기법, 갈등과 고통 해소의 청경

으로 뒤돌아와 고통을 수반한 인간 행복의 조건이 되고 참으로 삶을 보는 시각의 특별한 성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에 저울로 잴아도 대안할 것은 없지요. 모두가 원인과 관계 속에서 연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연기의 이치에 의해 자신이 존재하는 도리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배은(背恩)하게 되는데 "인간교만한 세상에서 제일 높고 영광보다 더 높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잡아함 1298경)

〈사랑더하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요. 아끼고 보호하며, 공경존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종종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어 देने 무심하고 거친 말 한마디는 믿었던 마음에 뜻밖의 아픔을 주게 됩니다. 무

심코 던진 남편의 무정하고 거친 말 한 마디에 속이 상하고 하도 서러워서 혼자 울었다는 어느 여성의 말처럼, 믿고 살아온 상대에 가서 받게 되는 이러한 언어폭력은 아내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주고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지요. 사람은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로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래저래 아픔이 참 많은데 말이요.

남편의 월급이 5만원이던 시절, 실업 회사를 하고, 집세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여성이 있었지요. 어느 해 겨울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김장배추를 따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뜻밖의 걸음을 다서는 따로 모았지요. 집에 가져가서 그해 겨울 새래기국이라고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서 걸일 안에 있는 숙임도 한 장씩 뜯어서 같이 모았는데, 이것을 눈치챈 주인 아주머니가 "펼쳐놓은 것을 왜 떼어내느냐! 폐지풀려고 그러냐!"하는 말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 여성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요.

부부지간이나 자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 아픔은 잠깐이지만 먼 훗날 당신(너희들)이 오늘을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더 아프네요." 삶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서로를 보배구슬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데 자기그릇처럼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면 서로의 가슴에 금이 생기고 아픔이 생키

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러한 부딪힘을 통해서 더 생각하고 더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사는 것이나 인간관계가 어찌 항상 순풍에 돛단배이듯 할 수만 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좋은 때와 삶은 때가 있기 마련이며 마지막은 언제나 이별이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지요. 원인과 관계에 의한 존재요 삶이라는 연기에 의해 시간의 격변하는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탄생과 존재라는 사실에 눈뜨게 하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는 삶에 대한 시각과 삶의 사실을 말한 연기의 법칙은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의 양보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면 그만큼 여유롭고 넓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지요. 미워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좋은 것 같은 것이 집착하여 분별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고통이 생기게 되지요. 내 인연인줄 모르는 인간의 무명에서 인연의 귀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아끼고 보호할 줄 모르게 되지요.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인연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가지를 모르는 자는 오래 지닐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어둠과 후회 속에서 짧은 늦게 드는 것이지요.

신달자 시인은 남편과 사별 후 그의 시에서 "여보, 비가 와요. 여보, 국이 싸요. 여보, 밥 더 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출근하는 가족들의 우산 챙기기,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 등 일상의 작은 언어들, 소중함과 삶 속의 작은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일상에서 더 따뜻하게 웃기, 더 아끼고 더 보호하기, 더 사랑하기,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기, 더 겸손하고 하심더하기, 더 존중하기, 나누더하기 그리고 사랑더하기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만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으며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사랑해 보십시오.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평화를 가득히... 음 산대!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겹들지 말아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도 진리대로 행동하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실사 내세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닮아 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래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 하여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라도 버리고 출가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뜨신 부처님, 사십오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몸소 자비를 구현한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은 육신의 나이 여든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가르침은 어둠 밤에 등불처럼 중생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 지상에 인류가 살아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불전) (불전)

진리의 여율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문도록 하여라. 승단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어려워 말고 어서서 물어보아라. 다양한 친구귀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아라." 이때 아난다가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난대의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계시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방치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영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실장은 위한 후원을 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동동 8-8 ☎ : 051-652-0705

불교설화 <13>

구렁이아들

— 부여 가장글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장굴이란 마을에 천석군 조씨가 살고 있었다. 재산이 많은 데다 늘그막에 기다리던 아들까지 보게 된 조부자 내외는 더없이 행복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스님이 조부자 집 문간에 서서 열불을 하고 있었다. 마을 뒤편 무재산 보광사에서 탁발하며 내려온 천수 스님이였다. 『아이구 보광사 스님이시구면유.』 『예, 그렇습니다.』 천수 스님은 합장한 채 공손히 인사를 했다. 『시주를 드릴 터이니 열불은 그만하시고 어서 편 집으로 가 보시유.』

조부자 아내는 몇 줌 안되는 쌀바가지를 내밀었다. 스님은 메고 있던 바구니에 쌀을 받으면서 말했다. 『열불을 좀 더 해야겠습디다.』 조부자 아내는 내심 거주잡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감사하오나 지금 저희집 3대 독자가 안방에서 곤히 낮잠을 자고 있습. 하도 귀한 아들이라 췌개 조심스러워 부탁드리는 거예요.』 스님은 좀 언짢았지만 조용히 대답을 했다.

『허나 소식이 열불을 더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귀한 아드님으로 인해 잠자 이 집 안에 일어날 액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열 불말씀 다하시네유. 애지중지하는 남의 집 아들 보고 액운 운운 하시다니... 『미리 막지 않으면 평화스런 귀력의 화가 미칩니다.』 『화라구요?』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의 근원이 무르익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뜬말이 말고 무슨 곡절인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아까와는 달리 조부자 아내는 스님에게 간곡히 사정했다. 『소식이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으로 막걸리 50말을 잠간하여 온 동네 사람들을 집 마당에 청해 술잔치를 베푸십시오. 단, 온 사람마다 술 한 포씩을 가져오게 해 마당 가운데 숯불을 지피고 풍악을 울리십시오. 그럼 소스 이만 불러 갑니다.』

조부자 아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다 싶으면서도 천수 스님의 말을 묵살 할 수 없었다. 도에 통달해서 용하기로 이른날 보광사 스님이 허튼소리를 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조부자 아내는 스님이 알려준 대로 막걸리 50말을 준비하고 술잔치를 벌였다.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숯불이 별경계 달아 올랐을 때였다. 방 안에서 아들이 『안양, 목을 놓고 우는 것이 아닌가. 조부자 아내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 놀라서 그리는 줄 알고 어르고 달랬으나 막무가내였다.』

오만상을 쟁그리며 마구 울어대는 아들을 보자 조부자 아내는 울화가 치밀었다. 『말없는 애이 온다고 알려주어 남의 귀한 아들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네.』 부인은 천수 스님을 원망했다. 그때였다. 『보살님!』 천수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나타나자 풍악도 멈추고 사

람들의 웅성거림도 잠잠해졌다. 스님은 이상하게도 작은 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왔다.

『아니 스님, 그 관은 왜 들고 오셨습?』 『예, 우선 그 아이를 이리 내려 놓으세요.』 부인은 안고 있던 아들을 스님 앞에 내려놓았다. 아기는 더욱 소리 높여 울면서 조르르 엄마에게 달려가 치맛자락을 잡았다. 순간 천수 스님은 일인관도 없이 아기를 나귀처럼 데리고 관 속에 집어넣었다. 아기는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그러자 부인은 마치 실성한 듯 스님의 장삼을 쥐어 잡아뜯으며, 육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스님은 태연하게 부인을 때어놓고 관을 숯불 위에 내동댕이 쳤다. 시체가 이쪽저쪽 사방방에 은인중자 앉아 있던 조부자도 뛰어 나왔다.

『여보, 칼 가져와. 저 중놈의 배를 갈라 버리게.』 조부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칼을 찾았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 위에 던진 관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관의 형태가 완전히 사그러지자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칼을 찾던 조부자도 놀란 눈으로 관이 타버린 숯불더미 위의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웅당 울어와 할 아들의 시신 대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뜨거움에 못 견뎌 꿈틀거리고 있지 않았다.

『아니,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가고...』 조부자 내외는 천수 스님을 바라보며 외쳤다. 『저게 태의 아드님입니다.』 구렁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문을 연 천수 스님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아기를 가질 무렵 구렁이를 죽이지 않으셨는지요?』 『글쎄요... 아, 생각합니다. 토끼에게 풀을 먹고 있는데 풀 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길래 들고 있던 낫으로 찢어 죽인 일이 있었어요.』

『낫을 가져와 보시지요.』 조부자가 부러진 낫을 가져오자 천수 스님은 구렁이 뱃속에서 꺼낸 낫과 맞추어 보았다. 신통하게도 꼭 들어맞았다.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까지 어안이빙빙했다. 『큰일날 뻔했습디다. 구렁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외분뿐 아니라 동네분들까지 모두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때였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밀어닥치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빗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천수야 이놈, 내 칠천지 원수를 못 갚게 방해한 날 그놈 두지 않을테다.』

소름이 끼칠 만큼 알찼던 소리였다. 천수 스님도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그래, 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여러 사람 앞에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어림없는 수자 말고 꼭 물러가거라.』 순간 구렁이는 독기를 내뿜었다. 스님은 재빨리 합장을 하고 열불을 대항했다. 구렁이의 독기는 스님의 열불 속에 그만 사그러지고 말았다. 『허, 고안 놈 같으니라고...』 천수 스님은 웃음을 가다듬으며 유유히 절로 돌아갔다. - 최명혜



사기시승 밀교상서 ①

인도의 밀교

인도의 밀교는 대승불교가 한창이던 3~4세기 경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단편적으로 경전에 만트라(진언)가 삽입되었고 밀교적 요소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었다. 부처님의 영화 아래에서 돌아가지고 시작되었던 대승불교가 너무 이론적인데 치우쳐 그 신선한 힘을 잃어갈 즈음에 바라문교는 불교의 사상을 모방하고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힌두교로 탈바꿈하면서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이에 자극 받은 불교도 대중들을 귀의시키기 위하여 힌두교를 비롯한 인도 고유의 신앙을

형성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보살들이나 명왕, 천룡팔부 등의 호법 신장들, 혹은 절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불구(佛具) 등도 인도 고유의 신앙에 바탕을 둔 초기 밀교의 영향 아래에서 불교적으로 의미가 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무르익어 7세기경에 등장한 대입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은 이론적으로 탈바꿈하여 밀교다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는 중기밀교의 시대로서 상불지향의 이러한 밀교를 순밀(純密)이라고도 한

밀교의 뿌리는 인도에 민중의 열망을 반영한 초기 밀교 인도 고유의 신앙형태를 불교적으로 수용

폭넓게 수용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불교적으로 순화하였다. 초기의 밀교경전에서는 단순히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만트라나 다라니 등이 많았다. 재물의 이익이나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것에서부터 재앙을 소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의 밀교를 초기밀교라고 하며 흔히 잡밀(雜密)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고차원적인 상불지향의 것들로 순화되었다. 현재의 불교의 의례나 의식 등에는 이 시기의 모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진언을 외우고 인체를 맺으며 공양물을 올리는 것들이 다 이 시기의 밀교적 영향을 받아서

다.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전해진 밀교는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기의 밀교였다. 9세기 이후의 밀교를 후기밀교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남녀의 교접과 생리적 행법을 응용하여 상불에 이르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시기의 밀교를 만트라 밀교, 혹은 좌도 밀교로 부른다. 만트라라는 불교경전인 수트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만트라라는 말 자체는 '연속' '상속'의 의미가 있으며 주로 후기밀교경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특히 티벳에서는 밀교경전은 모두 만트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만트라나 만트라즘이라고 하면 성령위를 수행방법으로 도입한 인도 계통의 종교

인연수행의 길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두 사람이 사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디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디다." 오아시스가 나를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눈에 띄게 적어졌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눈에서 빠져 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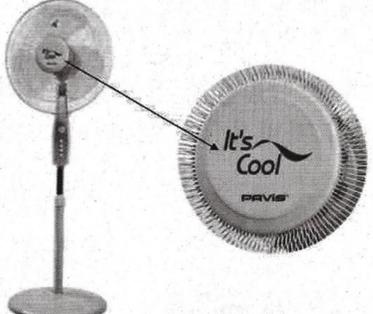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림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림이 불어와도 영원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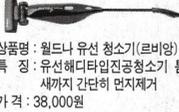
- 제품명: 라미로렉스 선풍기
모 델: LM-12S
특 징: 독특한 방식의 4단(정지, 약, 중, 강) 풍속조절 스위치
가격: 45,000원
- 모 델: MU-8300F
특 징: 3단계 바람세기, 기, 5엽 날개
가격: 15,000원
- 모 델: MU-9100F (벽걸이)
특 징: 3단계 바람세기, 3엽 날개
가격: 25,000원
- 모 델: MU-9200F (벽걸이리모컨)
특 징: 리모컨 기능, 3단계 바람세기, 3엽날개
가격: 28,000원
- 모 델: 16인치 선풍기 PV-716MER(기계식)
특 징: 16인치 날개를 채택하여 더욱 시원하며 가정,업소,사무실 등 다양한 사용가능함.
가격: 28,800원



상품명: 웰빙 은나노 다기능믹서기
특 징: 고성능 파워 모터 사용으로 요리시간 단축, 소음이 적고 이중 안전설계로 안정성보장.
가 격: 35,000원



상품명: 듀프렉스 무선 전기 주전자
특 징: 자동전원차단, 스테인레스바닥, 분리형받침대, 용량: 1.8L.
가 격: 19,000원



상품명: 월드나 유선 청소기(소바방)
특 징: 세제제타입인진공청소기 특 유까지 간단한 먼지제거
가 격: 38,000원

스틸다리의 대표 브랜드... << 인기상품! >> 콘에어 스틸다리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3431·0388(代) 팩스 02·3431·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총지문에



안 대영
동해중학교 3학년 1반

요즘 들어 퐁 책을 읽지 않던 내가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트레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트레버', 읽어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는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레버'라는 책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트레버'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교사인 루벤 선생과 그의 제자 트레버, 그리고 트레버의 임미인 아들

세상을 바꾸는 일 - '남에게 베푼다'

렌, 학교의 생활과 집안 생활을 번갈아가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루벤 선생은 아이들에게 특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를 내주게 됩니다. 그 과제는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실천으로 옮기시오'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아주 엄청난 고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레버의 아이디어는 바로 '남에게 베푼다'입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일, 어찌 보면 쉬울 수도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트레버는 아주 큰 일로 만들어 냅니다. 그냥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3명에게 도움을 입힌 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도움이 필요

한 3명에게 베푼다는 일입니다. 그럼 금방 9명이 되어 버리고 또 그 9명이 계속해서 하다보면 언젠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 베푼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모두가 베푼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푼다는 일을 합니다. 결국 다 완성되지 못했지만 트레버는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알리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트레버는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외로운 동네의 할머니에게 위로가 돼 주고 정원도 가꾸어 주면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며 베푼다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푼다는 일을 끝마치기 위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무런 이유도 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정원을 가꾸어주며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일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은커녕 자그마한 실천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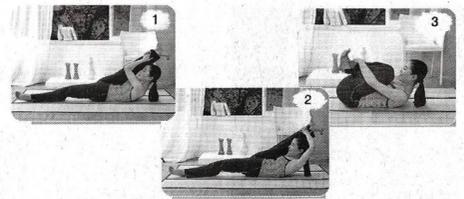
이 책은 희망이 없고 힘든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푼다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 넣어 주는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해서 꼭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 아주 작지만 매우 따뜻한 일, '나 하나뿐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선정을 베푼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정말 트레버의 바람대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트레버의 남에게 베푼다는 대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쯤 해 보면 어떨까요?

이달의 생활요가

몸에 좋은 생활요가 체조



1. 천장을 향해 눕는다. 양손으로 왼쪽 다리 발목을 감싸 쥐듯 잡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얼굴까지 올린다.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면서 다리를 올리는 것이 요령. 그 상태에서 어깨가 살짝 들릴 정도로 고개를 들고, 다리는 최대한 얼굴에 가까이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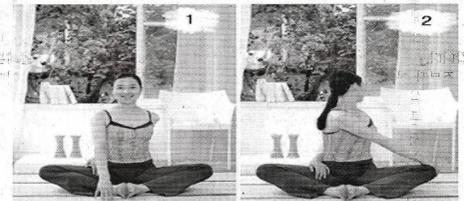
- 요가 시작 전에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할 때는 입숨을 자연스럽게 다룬 뒤 혀끝을 반드시 입천장에 붙이고 등은 쭉 펴고, 턱은 당겨서 목의 기가 열리게 해주세요. 배가 볼록해지도록 숨을 들이쉬면서 팔뚝근을 쪼이고, 그 상태에서 잠시 참았다가 마신 숨을 2~3배 정도 길게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팔뚝근을 풀어주면 돼요. 복식호흡은 20회 이상 실시하는데, 이때 눈을 지그시 감거나 한 곳을 응시하면서 호흡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 발목을 잡은 손을 얼굴 뒤로 넘겨 다리를 최대한 뻗게 한다. 이때 오른쪽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린다. -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은 반드시 펴아 다리 뒤쪽 근육을 자극해 부기를 빼고 다리를 예쁘게 정리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 오른쪽 다리로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한 뒤 양다리를 구부려 무릎이 가슴에 닿도록 끌어올린다. 상체는 어깨가 들릴 정도로 들어올리고, 숨을 들이쉬어 참았다가 내쉬면서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며 조여준다. 15~20초 정도 자세를 유지했다가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준다. 팔다리를 편하게 벌려 누운 송장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 상체는 45도 정도로 들어야 장이 효과적으로 자극된다. 그 이상 들면 오히려 목 뒤가 땅기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므로 주의한다.

한 동작 대

허리 근살 베푼다는 '재봉사 자세, 좌우로 비틀기'



1. 양 발바닥을 벌인 다음 양 무릎을 구부려 바른 자세로 앉는다. 왼팔은 등 뒤로 돌려 오른쪽 넓적다리 안쪽을 잡는다. 오른쪽은 그대로 뻗어 손가락 끝으로 땅을 살짝 짚는다.
2. 그 상태에서 오른쪽손을 앞으로 돌려 왼쪽 무릎을 감싸 쥘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몸을 왼쪽으로 비튼다. 멈춘 상태에서 왼쪽 뒤를 바라본다. 이때 팔뚝근을 조여준다.
● 율동불통한 허리살은 물론 팔뚝 라인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생리통이 심할 때 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이달의 추천도서

꽃비
정관 지음/ 해조음



동자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 스님이 3년간 영국에서 그림 공부를 하며 틈틈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한 동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환경 동화이면서, 순박한 마음을 지닌 소년과 꽃의 요정이 나온 사랑 이야기다. 동자승 그림과는 달리 원성 스님이 이번 책을 위해 영국에서 그린 그림들은 신비한 요정들의 세계를 아름다운 색채로 펼쳐내, 마치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듯한 충만감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사라져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즉각 깨닫는 길

원성스님
'우리에게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佛性)이 있다'는 불전의 말씀은 수행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저자는

불성은 곧 본성이며, 위대한 실체이지만 본성을 둘러싸고 있는 정성의 오물인 티끌의 먼지가 덮여 있으니 그들이 카르마라고 이른다. 가족처럼 질기며 단단하기가 돌처럼 굳어진 이들을 벗기지 못하면 경성(靑性)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렵고 질기고도 단단하게 굳어 뭉쳐진 업장소멸을 주도하는 하늘의 소리, '관음수행'을 소개한다.

나야스테



지옥 스님의 부처님 인도사순례길 그 1년 간의 기록, 단순한 인도 여행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절, 탐, 만나는 사람들을 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쓴 책이다.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지옥 스님이 느끼는 감정과 이야기들은 모두가 구도하는 불교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페이지마다 성지를 직접 그린 순 때 묻은 간이 지도나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손바느질 등의 사소한 이야기들도 순례기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송원진 지음/ 도피인사



노동을 통한 성불의 길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의 '일(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이야말로 성불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 '연기의 세계'가 우리를 더욱 분열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나의 세계와 역사' 그 모두를 위해서도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더욱 더 헌신하고 노동행선에 더욱 더 정진해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비'라는 성불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치치폭풍 기타놀이



커다란 그림책에 고속 열차 치치폭풍과 동물 손님들의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기타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뜻밖의 사고 등 흥미진진한 동화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또 동화의 두 주 인공인 치치폭풍과 흰색이 닳은 고속

열차, 화물 열차 장난감이 함께 들어 있어 더욱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레일 위에 놓으면 생성 빠르게 달리는 기차들과 다양한 형태로 모양이 바뀌는 기타 레일과 신호등, 나무로 칠푼폭풍 신나는 기차 여행을 떠나보세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

노경선 지음/ 예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40여 년간 정신과 및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국내 소아정신과 치료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는 받는 저자는 부모들 속에 내재되어있는 잘못된 상식이나 정보를 다루고, 이를 통해 좋은 부모에 대한,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고 있다.

우선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정의하고, 아이의 뇌가 시기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반응하는지 두뇌 과학과 정신의학 이론을 토대로 명쾌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10가지 덕목과 실천지침들, 0세에서 12세까지 실제로 자녀를 키우면서 직면하게 되는 고민 22가지와 그 해결책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핵심들을 알려주고 있다.

茶香의 향기를 찾아서 **다 향**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어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 작설), 보이차, 오롱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총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재발견'

'미해결' 13세기 고려불교조각사 연구 '탄력'



◇안동 보광사에 모셔져 있던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



◇충주시에서 간행된 보협인다리니경에는 조탑공덕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변상도도 있다. 중국 오월국의 개보편을 모본으로 한 이 변상도는 묘사가 사실적이고 세밀하다. 한국 판화 미술사에 있어서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일체여래삼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리니경'(이하 보협인다리니경) 등 복장유물은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진행하는 불교문화재 일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조사단 박삼준 팀장은 "지난 5월29일 조사 과정에서 보살상을 움직이다가 남장의 경전인쇄본이 흘러내려 밀봉을 확인한 결과 복장유물 일부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복장의 추가훼손의 위험이 높아 사할과 합의하여 지난 6월20일 복장유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3세기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오래전부터 사찰에 봉안돼 있었으나, 학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불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보관을 쓰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위에 올린 자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다. 안정된 신체 비례와 간결한 주름, 영락장식 등의 표현이 뛰어나며, 정수리 부근에 머리리카락을 묶어 상투를 튼 유계가 보관만큼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름답고 화려하게 조각된 보관은 또 고려불교미술의 단면을 보여준다. 현재는 개금이 두껍게 돼 자세한 형태를 볼 수 없지만, 불상 X-ray 촬영결과 금속판에 넣을뎀과 불꽃무늬를 투각(透刻)한 것이 확인됐다. 투각은 조

각에서 묘사한 대상의 윤곽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보광사 관음상 보관은 넣을뎀이 세밀하게 표현돼 있고 그 주변을 보색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후대에 개금을 하면서 세세한 장식을 따라 금물을 입히지 못해, 본래 모습을 잃었다. 이 보살상은 양식적인 면에서는 1199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하며, 이국적인 상호나 간략화된 주름표현 등은 서산 개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께를 같이 한다.

선명된 문화재 전문위원은 "12세기부터 13세기 불교조각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보광사 관음상의 발견은 귀중한 사료"라며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13세기 고려 불교조각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살상에서는 1000년 전 고려의 인쇄문화를 보여주는 인쇄본이 대거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협인다리니경은 '고려국총지사주진영광제대사석종철경조보협인경판인시보안불담중공양사통화이십오년장미세기(高麗國總持寺主眞像廣濟大師願弘石造佛經莊嚴板印施普安佛塔中供養佛經二十五丁未歲記)'라는 기록이 있어 조성자와 조성연도를 알 수 있다. 간기(刊記)에 따르면, 이 경은 고려

총지사 주진 진영광제대사 종철 스님이 통화 25년 즉, 고려 목종 10년인 1007년에 조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1000년 전에 인쇄된 것(印出)된 것으로, 보협인다리니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첫 장에 보이

는 변상도 역시 중국 오월(吳越)의 975년 개보판(開寶版) 변상도보다 경전의 내용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병재 문화재 전문위원은 "경전 인쇄 후에 책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보살상에서 발견된 보협인 다리니경은 '재본을 하지 않은 남장'으로 보관돼 있어 고려시대 인쇄 원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 함께 발견된 '범서총지집'은 다리니를 모아 놓은 책으로, 전체 47장 중 8장이 결장된 39장이 확인됐다. 1150년에 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은 평양 광제포에서 사원스님이 교정해 간행한 것. 현존하는 범서총지집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인쇄돼 밀교사상 및 다리니 연구자료로 가치가 높다. 이밖에 1장으로 돼 있는 정원신역화영경소 권6과 소전등 등 고려시대 의천국사가 만든 교장(敎藏)의 일부도 확인됐다.



◇지난 2006년 인쇄 백담사에서 열린 만해축제의 한 장면

스님이 사인이며 민족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07 만해축전'이 오는 8월11~13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는 행사에서는 제1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만해대상, 유심작품상 수상자 시비 제작식, 시인회, 교교생 백일장, 서예대전 시상식, 시조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개금·채색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77호)과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이 철불로서의 자태를 드러냈다. 그간 보림사 불상 갈색 도르가, 도피안사 불상은 도금이 인하여 철불 본래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두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무리하고, 최근 불상을 공개했다. 두 불상은 통일신라시대(9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서의 존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보존처리가 시작됐다.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표면에 갈색 도색층과 기존의 흙집을 기리기 위한 일부미늘층을 모두 제거하고, 깃털 성령을 마

쳤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나발 부분에 철제진검을 걸은 모습과 페인트와 개금층, 카슈슈(옷철)와 같은 인공도료 피막층), 석회층(일제 강점기에 철제진검을 걸었던 것은 물론 부식되어 탈락한 녹을 제거하는 '내수물'을 받았다. 깃털 역시 고증을 통해 성령 및 보존처리를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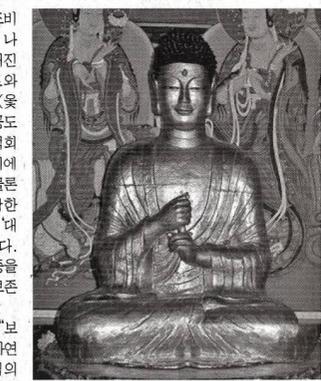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후 부자연스럽던 부처님의 상호가 자비로운 미소를 띤 원만상호의 모습으로 돌아와, 힘 있게 표현된 옷 주름과 윤곽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유산 제모습 찾기와 효율적인 보존

개금·채색 벗고 원 모습 찾은 비로자나부처님

보림사·도피안사 철불좌상 보존처리 완료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77호)과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이 철불로서의 자태를 드러냈다. 그간 보림사 불상 갈색 도르가, 도피안사 불상은 도금이 인하여 철불 본래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두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무리하고, 최근 불상을 공개했다. 두 불상은 통일신라시대(9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서의 존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보존처리가 시작됐다.



◇국보 63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보존처리 전 개금이 된 상태

관리를 위해 사할 소장 중요 동종 복제, 국가지정 재물 관리현황 정밀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7 만해축전' 오는 11일~13일 백담사 만해마을

만해대상 시상식 학술심포지움 등 다채롭게 열려



◇지난 2006년 인쇄 백담사에서 열린 만해축제의 한 장면

스님이 사인이며 민족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07 만해축전'이 오는 8월11~13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는 행사에서는 제1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만해대상, 유심작품상 수상자 시비 제작식, 시인회, 교교생 백일장, 서예대전 시상식, 시조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학술심포지움은 올해도 예외없이 풍성하게 열릴 계획이다. 민족문화학자회의, 한국문인협회, 불교평론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조계종 불학연구소, 창조인자학회, 한국불교어문학회, 한국사기학회, 한국시조학회, 한국시사상문화인협회와, 현대불교신문협회, 현대사학회 등에서 문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만해축전에 앞서 8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리는 '2007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움'에서는 한국불교 근대 대외적인 수행자인 만해스님

과 만공, 용성, 한암스님 등의 생애와 사상을 되새길 예정이다. 불교신문과 불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함으로써 조산불교의 수행 전통을 유지 계승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와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한 근대 선각자들의 의미를 반추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인력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들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인력을 얻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

'종교인간 사회현안 인식차이 크다'

개혁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설문조사

"불교, 가톨릭, 개신교 간 종교 갈등, 정치 등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 갈등 발생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재단, 우리사회연구소,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종교인 네트워크'는 지난 7월 30일 서울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 전국에서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찰 주지, 분당 주임신부, 담임목사 등 종교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종교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교는 '배타적인 전파방법(51.0%)'을 꼽았고, 가톨릭은 '타종교 이해부족(32%)', 개신교는 '교리차이

(25.8%)'라고 답하는 등 현저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종교계 내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불교는 배타성(32%)을 지적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장주의(25%)를 꼽는 등 종교 간 문제의식의 편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적지 않은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정당 정책결정도에 대해 불교는 한나라당(24.2%)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가톨릭(28.0%)과 개신교(37.4%)는 각각 민주노동당이라고 답했다. 또한 특정종교에 편향적이었던 역대 대통령에 대해 불교(70.8%)와 가톨릭(48.9%)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개신교가 이만찬 전 대통령(50.0%)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모든 응답자들이 97년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와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유마니반매흠)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인력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들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인력을 얻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교계소식

“방학철 복지관에서 봉사”

어르신·장애우와 함께...불교계 복지관 봉사 캠프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3세대 통합 여류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학철을 맞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장애아동들과도 스텝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세대와 장애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 어르신과 함께하는 봉사캠프다.

하는 3세대 통합 여류자원봉사학교 TOP GOAL'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8월 7~9일까지 사흘간 청소년들이 어르신과 함께 급식봉사 등의 자원봉사를 체험하고, '세대교감 '소감나누기' 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 1만 원. (02)739-9501

서울 노년복지센터는 어르신과 함께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월17일

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제13차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개최한다. 1주일 단위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자원봉사학교는 관내 무의탁 어르신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말벗하기, 안마·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02)385-1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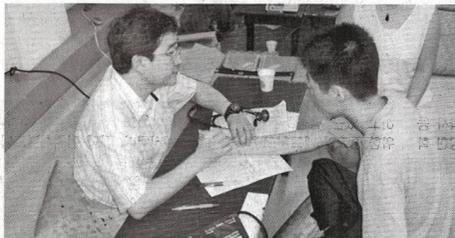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1기 청소년 봉사단 FLY'를 조직한다. 봉사단에 참가한 학생들은 8월 31일까지 팀별로 경로식당에서의 급식 봉사,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의 원예치료 및 음악치료 보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051)417-6344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을 배우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봉사캠프도 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9기 '친구야 놀자'를 개최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피자를 만들고 민속박물관도 관람하며 즐거운 일정을 보낼 계획이다. (02)989-4215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02-852-0525)은 8월 7~10일 정지채장애인시설인 경기도 가평 '가난한 마음의 집'에서 봉사캠프를 열고,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름통합계절학교를 개최한다. 폐품 재활용, 장애체험 물총놀이, 소백산 죽령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054)633-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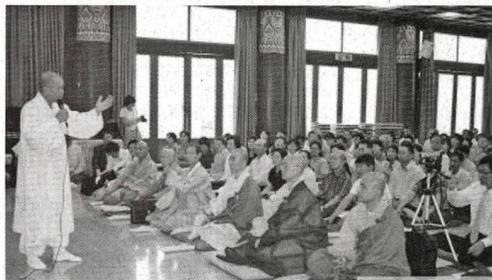
장애인포교단체 무료진료 의료봉사연합회



한국의료봉사연합회(회장 류재환)는 지난 7월22일 서울 조계사 교육회관 지하 원심회 법당에서 '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류재환 의불원 회장과 양동선 진료단장을 비롯해 안방과와 내과, 치과, 발마사지 및 손마사지 등 진료 과목의 15명 의료진이 50여 명의 원심회 회원을 무료 진료했다. 김정

순 의불원 부회장은 "장애인과 친구가 되길 원하는 불자 의료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병원복지회가 주축이 된 경찰병원 나눔 의료봉사단은 지난 7월15일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남양주복지회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조민구 경찰병원장이 동행한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199명의 남양주 지역민을 진료했다.

도올과 불교학자들의 만남 '믿음과 깨달음' 주제 워크숍 열려



◇김용욱 교수(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를 주제로 기초발제의 워크숍 사회를 맡았다.

'도올 김용욱 교수와 불교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이 7월 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렸다. 5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한 이날 워크숍은 '믿음과 깨달음'을 주제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 사회 및 기철학체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욱 교수(세명대 석좌교수)는 신학 해석을 두고 신학자들과 논란을 벌인 이야기와, 기독교에서의 믿음에 관한 설명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특히 "인간의 행위"에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점수(漸修) 속에 돈오(頓悟)가 있고, 돈오 속에 곧 점수가 있을 뿐"이라며 "돈오 돈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돈오와 와도 점수가 계속되어야 깨달음이 유지되며, 육박자 믿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깨달음이 이 시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기초강연이 끝난 후 초기불교에서 선불교까지 시대별 불교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 불교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5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도올 김용욱과 불교의 만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2시간여에 걸친 발표가 끝난 후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이광래 교수(충남대)는 총평에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 불교가 한국 사상계의 주류로 편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참석한 불자 모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의 열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수불자대회 '생로병사와 해탈' 열린다 8월 20~22일 평창 월정사에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가 주최하는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가 '생로병사와 해탈'을 주제로 8월 20~22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다. 김용표 교수는 "불교의 생사관과 해탈관을 조명하고 웰빙과 수행의 접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20일 대법문전에서 열리는 결제식에서는 교수 스님(금봉암 조실)이 '생사 일대사와 해탈'을 주제로 법문하고,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가 기초 강연한다. 21일 진행되는 화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생로병사와 해탈' 웰빙과 불교수행'을 주제로 아상가 릴라

카라테(스리랑카 켈로니아대학)의 '테라바다 불교에서의 삶, 고통과 죽음 그리고 해방', 에니 N. 사피로(미국 나로과 대학)의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 클로리아 위슬루브 브록스의 '불교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비롯한 2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22일에는 '공동체와 불교' '인간심리, 과학과 불교' '문화 예술과 불교' 등을 주제로 분과별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산사음악회와 참선·108참회·걷기명상·요가 등의 수행법 체험,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02)720-6618

조계종 '선암사 문화재 편집 도굴꾼 논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순천 선암사가 도난당한 문화재를 돌려달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 패소한 것과 관련, 7월 6일 논평을 발표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화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경유가 어찌됐건 손에 넣는 사람이 주인이며 공소시효만 지나면 정물을 사고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도굴꾼들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문화재 도난품장물의 매개가 보다 용이해지고 활발해 질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생활상식

겨자가루 냄새로 바퀴벌레를 퇴치

겨자가루 1/2 작은술을 티 백 봉지에 넣어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식기장에 넣어 둔다. 바퀴벌레는 겨자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자집 짐꾼처럼 못한다. 바퀴벌레는 극히 적은 양의 수분으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기를 씻을 때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 낚은 스타킹으로 배수구 청결히 하기

올이 나가지 신지 못하게 된 스타킹의 다리 부분을 3등분하여 한쪽 끝을 묶어 지루 모양으로 만들어 배수구의 거름망으로 사용하면, 1월래 6개 정도의 망을 만들 수 있다. 사용으로 망이 막힐 때 교환하면 싱크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 신문이나 잡지 수납

좁은 공간이 되기 쉬운 테이블 밑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테이블 밑에 수건 걸이 2개만 설치하면 신문이나 잡지의 전용 공간으로 변신한다. 수건 걸이는 접착 테이프로 붙이는 타입이면 좋다.

▶ CD나 디스켓 수납

자이저 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 여자가 거울처럼 있기 쉬운 CD와 디스켓. 그러다 나 쓰고 난 티수함에 보관하면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다. 걸이에 예쁜 천을 두르면 장식 효과도 커진다.

▶ 이불 먼지와 진드기 제거

청소기로 이불의 먼지와 진드기를 청소하고 싶은데 이불까지 흡입기로 말려 들어가 고민일 때는 청소기의 헤드 부분에 낚은 스타킹을 씌우면 된다. 미세한 그물이 이불은 그대로 놔두고 먼지와 진드기만 빨아들인다.

▶ 뒷자리 청소

뒷자리가 어떻게 변색하기 시작하면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뜨거운 물에 걸레를 담갔다 꼭 짜서 닦으면 된다. 식초의 미백 효과로 햇빛에 의해 뒷자리가 어떻게 변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걸레가 뜨거우므로 고무 장갑을 끼고 걸을 때라 닦아야 한다. 다른 걸레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불교총지중 중앙신정회 회장선출 공고



불철주야 용맹정진하시는 교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총지중 중앙신정회에서는 중단의 오랜 염원이며, 교세발전과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중앙신정회 회장을 경로법회기간에 선출하고자 하오니 각 지회 지회장님과 간부님들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 36년 8월 29일~30일
- 장소 : 충주호 리조트
- 대상 : 각 지회 지회장 및 간부

불교총지중 중앙신정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총기 FOCUS

대전 만보사 제1회 연꽃축제

연꽃은 10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 가지 특징을 닮게 사는 사람을 연꽃처럼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는군요.

1. 이제염오(離塵染汚)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야 아름답게 꽃피우는 사람은 연꽃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이제염오(離塵染汚)의 특성을 닮았다고 한다.

2. 불어악구(不與惡俱)

연꽃일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물이 연잎에 닿으면 그대로 흘러떨어질 뿐이다. 물방울이 지나간 자리에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와 같아서 악과 거리가 먼 사람, 악이 있는 환경에서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를 연꽃의 불어악구(不與惡俱)의 특성을 닮았다고 한다.

3. 계향충만(戒香充滿)

연꽃이 피면 물속의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꽃에 가득하다. 한 사람의 인간에게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고결한 인품은 그윽한 향을 풍겨서 사회를 정화한다. 한자라 촛불이 방의 어둠을 가시게 하듯 한순간 연꽃은 진흙탕의 연꽃을 향기로 채운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계향충만(戒香充滿)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 한다.

4. 본체청정(本體淸淨)

연꽃은 어떤 곳에 있어도 푸르고 맑은 줄기와 잎을 유지한다. 비타에 오물이 즐비해도 그 오물에 뿌리를 내린 연꽃의 줄기와 잎은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와 같아서 항상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본체청정(本體淸淨)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 한다.

5. 면상희이(面相喜怡)

연꽃의 모양은 둥글고 원만하여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짙로 온화해지고 즐거워진다. 얼굴이 원만하고 항상 웃음을 하고 항상 웃음을 머금었으며 맑은 부드럽고 인자한 사람은 옆에서 보아도 보는 이의 마음이 화평해진다. 이런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면상희이(面相喜怡)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

6. 유연불삼(柔軟不澁)

연꽃의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좀처럼 바람이나 충격에 부러지지 않는다. 이와같이 생활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유연불삼(柔軟不澁)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

7. 견자개길(見者皆吉)

연꽃을 꿈에 보면 길하다고 한다. 하물며 연꽃을 보거나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은 꿈에 보아도 그날이 즐거운 사람이 있다. 어떤 분을 만나는 날은 하루가 즐겁고 일이 적적 풀린다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길한 일을 주고 사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견자개길(見者皆吉)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

8. 개부구족(開敷具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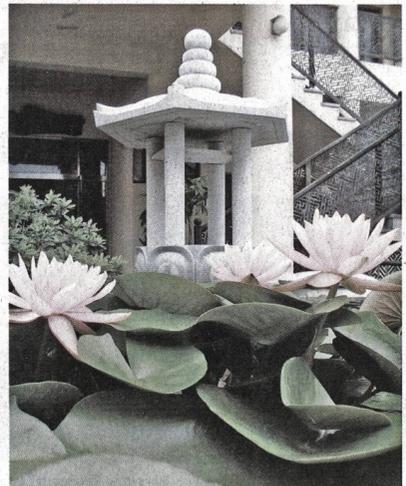
연꽃은 피면 필히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꽃피운 만큼의 선행은 꼭 그만큼의 결과를 맺는다. 연꽃 열매처럼 좋은 씨앗을 맺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개부구족(開敷具足)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 한다.

9. 성숙청정(成熟淸淨)

연꽃은 만개했을 때의 색깔이 품기로 유명하다. 활짝핀 연꽃을 보면 마음과 몸이 맑아지고 포근해짐을 느낀다. 사람도 연꽃처럼 활짝핀듯한 성숙감을 느낄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가 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면 은연중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맑아진다. 이런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성숙청정(成熟淸淨)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 한다.

10. 생이유상(生已有想)

연꽃은 날 때부터 다르다. 넓은 잎에 긴 대, 굳이 꽃이 피어야 연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연꽃은 싹부터 다른 꽃과 구별된다. 장미와 질레는 꽃이 피어보아 구별된다. 백합과 나리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잡초 속의 보리와 풍인듯 복잡해서 구별할 수 없어서 속백일 수 밖에 없�지는 경우와 사람 자체가 모자라서 속백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혼탁한 사회에서는 속백을 자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꽃 앞에서는 절대로 속백이 되지 않는다. 연꽃은 어느 곳에서 누가 보아도 연꽃임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보아도 존경스럽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은거해도 표가 난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겸양해도 이대 알 수 있다. 옷을 남루하게 입고 있어도 그의 인격은 남루한 옷을 통해 보여진다. 이런 사람을 연꽃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생이유상(生已有想)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제7회 경로법회, 8월 29일~30일 '충주호 리조트'에서



제6회 경로법회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오늘 같이 행복한 날은 아마 없 꽃이 함박 피었네” 총지종(통리원장 원숙)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

북 충주 '충주호리조트'에서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라는 주제로 어르신들 위한 제7회 경로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이번 경로법회는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교도들을 대상으로 연애인 공연, 노래 자랑 및 장기경연대회, 온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특히 총지종이 형성된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수정처럼 맑은 충주호를 바라보며 그동안 용맹정진한 불공 공덕으로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을 떨쳐버리고 행복한 웃음으로 넘쳐난 자비와 아름다운 용서의 마음자리를 마련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로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로법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보 통신원 조직 가시화

충지총보의 질을 향상하고 가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시작된 총보통신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총지사의 젊은 교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총보 편집진이 총보의 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 규모의 총보 통신원 조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30여명 정도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발대식을 가지고 총보의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총보 통신원은 총보를 모니터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사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도들의 실행담과 미담에 대한 소식도 전하게 된다. 또한 총보 통신원은 앞으로 총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통하여 총보의 질적 양적 확대에 기여하는 물론 총단과 교도 간의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총단 발전에 중추적인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면,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속마음을 미처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서울경인 지회장, 총지사 신정희장)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 않지만 우리의 비평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에 더 더 주고 덜 받을에 섭섭해하며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 먼길 가다가 어느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우리 서로 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지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길 기다리며 뜻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각사에 새로운 수행바람이 불고 있다!!!

건강체조와 '명상', '깊은 호흡'으로 나를 다스리는 수행...

부산 정각사(주교 법공 정사)에 오즈를 새로운 수행바람이 불고 있다. 정각사 주교로 부임한 법공 정사와 승직자들이 교화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시작한다. 6개월, 정각사 문화교실을 3월경에 열면서 요가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화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수행풍토가 불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체조와 명상의 시간이 바로 그것. 현재

매일 아침 15분간 실시하고 있는 건강체조와 명상도 기존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교 법공 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건강체조는 다양한 체위와 동작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흡도가 높다. 19가지의 몸 동작으로도 굳어진 몸을 풀고, 장시간 앉아서 불공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가져올 수 있는 몸에 적절한 예방운동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건강체조가 끝나면, 5분간 명상에 들어간다. 삼밀연승의계에 들어가기전 몸과 정



신을 가다듬고 깊은 호흡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행은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고 있다. 작은 시도이지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

다. 새로운 수행바람이 정각사를 벗어나 전국 사원으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정각사의 끊임 없는 시도와 변화를 기대해본다.

세상사는 이야기

지금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가슴을 축축히 적어주는 이 아침, 따뜻한 커피 한잔을 앞에 놓고 창밖을 내다 보고 있다. 며칠 전 방생 하는 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 하반기 49일 불공을 마치고 다음날 예정대로 방생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사찰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다. 49일 불공도 모두 열심히 했고 끝맺음인 방생법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했다. 현대에는 인간방생이라 해서 어려운 이 뜻을 돕는 일도 중요 하지만 불교의 전통적인 행사는 죽음에 처해 있는 생명들의 목숨을 구해 주는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방생은 일년 내내 하고 일년에 한번은 이런 행사 진행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방생법회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정말 소중한 하찮아 보이는 미물 일지라도 인간의 생명과 다르없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 주는 계기가 되는 날이다. 장마철이라 방생법회 하는 날 비가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지난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되었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

방생법회(放生法會) 단상(斷想)

야 할 텐데... 방생도록 비가 많이 오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빗방울이 조금 약해졌다. 새벽 첫차를 타고 사찰에 도착했다. 벌써 많은 보살님들이 와 계셨다. 우리 보살님들 시간도 잘 지키시는 일동 보살님들이시다. 보살님들은 너무나 친절 없이 모두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신다. 나에겐 모두 관세음 보살님 같이 보인다. 드디어 버스가 출발했다. 우리 교도분 들을 가득 태우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득 싣고 떠났다. 오늘 따라 빈자리 하나 없이 모두모두 가득 채워진 느낌이다. 방생 장승인 안면에도 가까이 질수록 빗줄기는 가늘어져 법회 할 때에는 비는 그치고 잠시 뿐이지만 햇살도 환히 비쳤다. 먼저 나누어준 비웃을 입고 방생을 했다. 파도는 조금 센 편이지만 장마 탓인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

리들만의 행사 진행에는 더 없이 좋았다. 물고기들도 넓은 바다가 마음에 드는지 처음에는 파도에 조금 밀리는 듯 했으나 곧 파도를 타고 깊은 바다로 돌아갔다. 잘 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이라, 다시는 불잡히지 말고. 이 날은 우리가 총지종 교도이긴 하지만 만나기 힘 들었던 경인 교구의 다른 사찰의 스승님과 교도들을 만나 기쁨을 나누고 많은 교도들이 함께 모여 같이 법회 할 때의 뿌듯함

과 속아나는 힘을 우리 모두 느꼈을 것이다. 함께 했을 때의 이 신비한 기운,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을까. 법회를 경건하게 마치고 단상대회 겸, 장기 자랑에 들어 갔다. 우리 사찰에서도 준비 한 보살님의 노래와 '토고에서 온 축하 사절단'이라는 공연도 보여 주었다. 대성공이었다. 준비 한 만큼 결과도 좋았다.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총주님을 비롯한 보살님들의 노래의 결과였다. 다른 사찰들도 개를 발휘해서 우리 스승님과 교도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간간히 비가 뿌리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방생법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게 해 주신 보살님들 존경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보살님들이 삽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거대한 도화지에 누군가가 그려 놓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어느 화가가 이 멋진 수묵화를 그려왔을까? 자연이라는 화가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수묵화 속의 신선 세계를 거닐 듯 그렇게 돌아 왔다.

신행체험 41

소중한 인연에 감사



함영옥 보살 (부산 정각사)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과 해탈절 방생을 앞두고 질 구성구성이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절에 꾸준히 다닌 불자들이 큰 업장 소멸의 기회로 누구나 북돋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관계로 그저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로 수수방관 하던 내로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었다. 그녀는 중에도 어느새 법당내의 불기들이 하나씩 들쭉 작업(?)에 즐겁게 날리고 있었다. 향로, 촛대....

누렇게 색이 바랜 불기들은 말 없이 정성스런 손길을 기다린 듯 어느새 한 겹 한 겹 때를 벗고 있었다. '잠시 묵어 놓았을 때들도 닦아내기 이리 힘든데 세세생생 생아 놓은 업장을 닦기는 얼마나 힘들죠?' 처음 하는 일이라 나를 힘들지만 표현 못하는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내 뚜껑엔 업장을 닦는다~ 생각하고 일심을 다해 닦으면 힘도 하나도 안 들제! 부처님, 참말로 고맙심더" 그녀가 젊은 보살이라 불리는 나로

서도 팔이 빠진해 오는 즈음에도 그저 '감사하더'는 말씀으로 할머니 보살님들은 진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이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힘이 아닌, 오랜 세월의 정진과 수행으로 실천하시는 그 모습들에서 순간 난 어떤 훌륭한 법문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깊고도 험한 인생의 고개들을 넘어 오시면서도 저토록 넉넉한 감사로 살 수 있는 건 부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란 걸 직접 체득할 수 있었다. 사실,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지는 꽤 여러 해 되었지만 현실적 핑계만 대면서 근심 근성으로 세월만 채워 놓고 있었음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다 온전한 부처님의 제자로 돌아 오기에는 정말이지 용기 아닌 용기가 필요했었다. 나 자신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살았는지, 어떤 망상에 갇혀 살았는지, 왜 행복하지 못했는지... 불공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맛보았다. 지금껏 내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불안과 슬픔의 눈물들이 이제 참회의 눈물로 바뀌었음을 감사해 한다. 구름 속에 가려진 햇빛을 보기 위해 햇빛을 찾기 보다는,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자선에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따뜻이 챙겨 주시고 예쁘게 맞아주시는 우리 사원의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감사해 하며 '남의 앞에 등불을 밝히면 내 앞도 밝아진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서원한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실천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중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여름학생수련법칙을 찾아서

모험과 도전정신! 하나되는 총지인



부산 바라밀, 동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50여명을 초청하여

부처님 자비실천의 장을 실천한 여름학생 수련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대회!!!!

호연지기의 기상과 총지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함양.....

한국불교의 삼보사찰중 불보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한 경남 합천 청소년 수련관에 도착한 청소년과 어린이 270여명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어느덧 17년 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자랑하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

세월의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것일까? 행사를 진행하는 지도교사들의 얼굴에는 여유만이 우러나온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시작된다. 제비스럽고 인자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 지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굵고 위엄있는 목소리가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군인이자씨의 모습같이 무섭게 느껴진다.

첫 프로그램으로 종이에 적혀진 미로를 찾아가는 미로찾기, 생전 처음 본 인도말이라고 하는 법어로 쓰여진 옴니반메를 따라 쓰는 사경, 퀴즈대회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다음날은 래프팅을 한다기에 기대가 된다. 뉴스에 의하면 합천이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날씨가란다. 에어컨이 없는 방에는 무더운 기운이 온 방을 감싸며 땀방울이 줄줄줄 흘러 내린다.

둘째날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래프팅을 하기 위해 황강으로 갔다. 고무보트에 11명이 타고 물줄기를 타고 내려온다. 무더운 날씨에 온 몸에 땀방울이 흘러내리지만

간간히 상대방의 보트에서 장난치는 물장구에 차가운 물줄기가 온 몸을 씻는 순간 짜릿한 기분이 들며 더위를 식혀준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대방과 보트의 물장구를 치며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 어느덧 1시간 30여분의 시간이 지났다. 앞은 물에서 물장난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2년전 유명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세트장을 방문하였다.

이틀동안 같은 방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내년에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여름학생 수련법칙의 막이 내렸다.

대 회 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원승 통리원장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생 여러분들의 심산전편과 정신 수양을 함양코자 매년 열어온 총단 수련법칙이 올해에는 합천 청소년 수련회에서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먼 길에도 불구하고 수련법칙에 참여한 여러 학생분자들에게 승단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인솔하여 오시는 데 노고가 크신 승단 여러 스승님과 동해중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학생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 보다는 방향을 알차고 보았게 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번 수련법칙은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이 즐거우면, 끝도 없는 법입니다. 즐거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나 집에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면 하지 못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합천 청소년 수련법칙에서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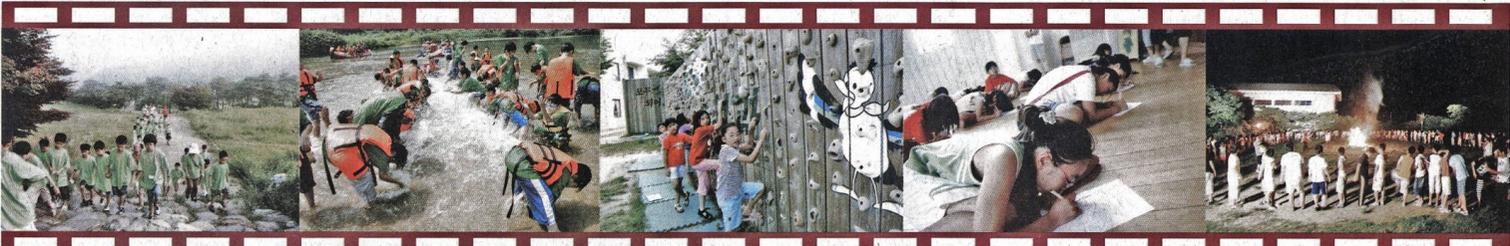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화염경 불교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즉 '하지 못해서 하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분명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마음으로, 이번 수련법칙을 잘 마무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 그전과는 전혀 다른 자기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천 청소년 수련법칙은, 이런 마음을 길러내는 수련법칙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길러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성도합시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출시



종조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이 나왔습니다.

총지종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다방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커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가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총지종은 이번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 등을 비롯한 오디오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요기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 통리원 전화 02)552-1080-3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